

법제처, 역대 처장·차장 초청 간담회 개최

법제처(처장 조원철)는 7월 3일(금) 한국프레스센터(서울 중구 소재)에서 역대 처장·차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.

이번 간담회는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의 성과를 소개하고,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제 발전 방안에 대한 역대 처장·차장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.

조원철 법제처장은 “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상시 정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,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제 자문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”라면서, “선배님들의 깊은 지혜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하나하나 새겨듣고 법제처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다”라고 말했다.

이에 박주환 전 처장(제22대)은 “법제처가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모습에서 자부심을 느끼고, 선배이자 동료로서 언제나 뒤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 라고 화답했다.

담당 부서	운영지원과	책임자	과 장	안민선	(044-200-6521)
		담당자	사무관	최인숙	(044-200-6522)